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김 재 필
(金在弼)

순천향대학교
경제학부교수



- I. 머리말
- II.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황
- III.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과 개선책
- IV.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발전방향
- V.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 VI. 맺는말

I. 머리말

1967년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의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자금공급 및 지역의 금융 중개기능 강화를 목표로 전국 각 시도에 설

립된 모두 10개의 지방은행은 1970년대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지방은행은 그 동안의 빠른 성장 속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여 온데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제한 및 중소기업 대출위주의 영업 제약과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서金利면의 우대라는 틀 속에서 성장해 온 지방은행이 과연 변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하에서도 과거의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유화에 수반되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추구는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바, 시중은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영업기반이 취약한 지방은행이 받게 되는 여파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됨으로써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금융활동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야 하는데 이는 결국 지방은행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되기도 하고, 혹은 금융이 실물경제를 존립케하는 혈액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지역의 실물경제 발전과 금융경제의 발전이 호흡을 같이 할 때 지역경제가 발전되기에 지방은행의 역할과 기능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될 대전·충남지역의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은행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 이의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황

본 장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외형적 현황과 내부적 현황으로 구분하여 외형적 현황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현재의 위상과 자금의 조달과 운용현황을 분석한다. 내부적 현황에서는 주요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에 대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을 분석한다.

1. 외형적 현황

가. 현재의 위상

대전·충남지역의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은 1968년 4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뒤를 이어 3번째로 설립되었다. 1995년말 현재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대전광역시에 63개, 충남에 30개, 서울에 5개, 인천과 충북에 각각 1개씩 총 1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납입자본금은 1,185억원, 자기자본은 3,429억원, 총자산은 4조1,360억원으로 우리 나라 10개의 지방은행 중에서 외형적 규모면에서 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총자산 규모만을 비교하여 볼 때 1990년의 5번째에서 한 단계 내려간 위치이다.

물론 이러한 비교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1990년에 충청은행보다 한 단계가 낮았던 광주은행이 1991년부터는 충청은행을 추월하여 현재까지 총자산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비슷한 정도의 지역내총생산과 인구수를 갖고 있는 지방은행간에 규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경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현황

1) 예수금 현황

자금조달의 주요 원천인 예수금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995년의 충청은행 원화예수금은 총예수금 1조8,529억원의 68.1%인 1조2,628억

〈표 1〉 지방은행 개요(1995년말 현재)

(단위 : 억원, 개)

은행명	설립일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총자산	지점수
대구	1967. 10	2,100	5,793	98,385	184
부산	1967. 10	1,710	3,988	88,404	156
충청	1968. 4	1,185	3,429	41,360	100
광주	1968. 9	1,800	4,070	56,350	31
제주	1968. 9	500	1,378	11,995	40
경기	1969. 12	2,002	4,593	63,404	148
전북	1969. 12	1,153	2,731	27,892	76
강원	1970. 3	1,062	2,560	25,116	53
경남	1970. 5	1,470	4,200	59,777	136
충북	1971. 4	1,135	1,949	24,083	57
지방은행평균		1,412	3,469	49,677	108
시중은행평균		4,979	10,297	230,630	232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점유비율만 볼 때에는 10개 지방은행의 평균치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 규모면에 있어서는 지방은행 평균인 1조4,217억원의 88.8%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충남지역의 금융기반이 취약하고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조성 규모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시중은행은 총예수금의 21.5%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충청은행과 지방은행 평균은 각각 2.6%와 5.6%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화예수금에 있어서 충청은행과 지방은행 평균과의 차이는 충청은행의 외환부문 영업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지적해 주는

것으로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외환부문에 있어서의 취약성은 시중은행과의 지방은행간의 외화예수금의 비중차이 약 7%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충청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영업이 국내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시중은행에 비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불리를 인정하더라도 금융환경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가 총 예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중은행 13.8%, 지방은행 18.1%, 충청은행 22.7%로 나타났다.

〈표 2〉 형태별 예수금 현황(1995년 평잔)

(단위 : 억원, %)

구 분	원 화			수입부금	양 도 성 예금증서	외 화 예수금	합 계
	예수금	요구불 예 금	저축성 예 금				
충청은행	12,628 (68.1)	3,413 (18.4)	9,215 (49.7)	1,202 (6.6)	4,211 (22.7)	488 (2.6)	18,529 (100.0)
지방은행	14,217 (68.2)	3,486 (16.7)	10,731 (51.5)	1,701 (8.1)	3,780 (18.1)	1,163 (5.6)	20,861 (100.0)
시중은행	47,877 (61.2)	9,765 (12.5)	38,112 (48.8)	2,638 (3.4)	10,782 (13.8)	16,767 (21.5)	78,064 (100.0)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2) 대출금 현황

1995년말 현재 충청은행의 대출금은 1조5,468억원으로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즉 기업자금대출이 1조1,756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76.0%, 가계자금대출이 2,632억원으로 17.0%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은행 평균 총대출금은 1조7,434억원으로 이중 82.7%인 1조4,420억원이 기업자금대출이고 12.1%인 2,110억원이 가계자금대출인데 이 수치들을 충청은행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기업자금대출은 그 절대액 규모나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자금대출은 기업자금 대출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금의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생산의 주체인 기업보다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부문에서 자금수요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충남지역의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자금의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충청은행의 자금운용은 상대적으로 보다 부실화의 위험이 적은 가계부문에 집중되고 있어 자금운용에 있어서 안전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은행의 기업자금대출을 지방은행 평균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금이 갖는 단기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장기성 자금인 시설자금의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담보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은행이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와 보증이 되어 있는 대출은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표 3〉 용도별 대출금 현황(1995년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계	기 업 자 금 대 출			가계자금	공공및기타	재형저축	근로자주택	은행간	합 계
		운전자금	시설자금	특별자금	대 출	자금 대출	자금대출	자금대출	대 여	
충청은행	11,756 (76.0)	11,120 (71.9)	636 (4.1)	0 (-)	2,632 (17.0)	779 (5.0)	3 (-)	144 (0.9)	154 (1.0)	15,468 (100)
지방은행	14,420 (82.7)	12,204 (70.0)	2,215 (12.7)	0 (-)	2,110 (12.1)	356 (2.0)	2 (-)	211 (1.2)	336 (1.9)	17,434 (100)
평 균										
시중은행	40,302 (75.7)	35,579 (66.9)	4,718 (8.8)	5 (-)	9,934 (18.7)	470 (0.9)	608 (1.1)	1,703 (3.2)	190 (0.3)	53,205 (100)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4〉 담보별 대출금 현황(1995년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계	담 보 대 출					보 증	신 용	합 계
		부 동 산	동 산	유가증권	예 수 금	기 타			
충청은행	7,092	6,673	0	61	341	17	1,397	6,979	15,468
지방은행평균	9,419	8,008	320	63	632	397	1,593	6,422	17,434
시중은행평균	24,728	19,361	1,553	285	3,018	511	4,077	24,401	53,205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신용을 통한 대출은 담보와 보증을 통한 대출보다는 대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충청은행은 신용대출/총대출의 비율이 45.1%를 차지하여 지방은행 평균의 36.8%보다 높아 대출이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시중은행의 45.9%와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 중에서 광주은행과 강원은행은 동 비율이 52.5%, 48.9%로 충청은행의 비율을 초과하고 있는데 광주은행의 경우 1991년 이래로 여타의 지방은행보다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미시적이기 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¹⁾

1) 1995년말 현재 광주은행은 신용대출이 9,643억원이고 총대출은 1조8,380억원이다. 한편 강원은행은 신용대출 3,879억원, 총대출 7,930억원이다.

즉 지방은행은 대표적인 지역금융기관으로서 해당지역의 실물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지역의 유망중소기업이 담보나 보증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기에 자금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신용대출/총대출의 비율이 높은 광주은행이 그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실물경제 발전은 지역의 금융발전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출의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대는 은행예수금의 증대라는 반사작용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표 5>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총대출에서 차지하

는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행 평균은 대체로 76%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점차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청은행의 경우와는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이 주는 의미를 살펴 보자. 최근 대전·충남지역은 다가올 서해안 시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지역으로서 각종 공단과 신도시의 건설 등 경제발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각종 기업들의 대전·충남지역으로의 입주도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대전·충남지역 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력 확충을 위한 충청은행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5> 중소기업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3			1994			1995		
	원 화 대출금	중소기업 대 출 금	점유비율	원 화 대출금	중소기업 대 출 금	점유비율	원 화 대출금	중소기업 대 출 금	점유비율
충청은행	8,943	6,245	69.8	11,722	7,796	66.5	15,314	9,958	65.0
지방은행 평 균	12,198	9,386	76.9	14,505	11,010	75.9	17,098	13,039	76.3
시중은행 평 균	33,453	16,567	49.4	40,373	20,119	49.8	53,015	27,516	51.9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6〉은 부실여신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부실여신은 은행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지표로 차후에 충청은행의 내적 현황을 살펴볼 때 재차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는 총여신 중에서 부실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충청은행 대출 현황의 일면을 보고자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부실여신 발생 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시중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점차로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은행 평균과 충청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최근에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특히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1994년에 1.4%, 1995년에 1.5%로 지방은행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충청은행이 총대출 중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이 여타의 지방은행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부실여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지역의 경제력

확충을 위하여 신용대출의 비중 또한 늘려야 하는 상황임을 염두에 둔다면 부실여신을 줄이면서 신용대출 비율을 높이는 조치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재무지표 분석

가. 수익성 분석

은행경영에 있어서 수익성은 총자산 당기순이익률(ROA),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ROE), 예대금리차 등의 지표들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충청은행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총자산 당기순이익률을 보기로 하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비교대상 모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은행은 신탁계정을 포함하여 ROA가 1990년 1.31%에서 1995년 0.6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은행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는 있으나 감소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6〉 부실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4			1995		
	총여신	부실여신	부실여신비율	총여신	부실여신	부실여신비율
충청은행	21,060	286	1.4	27,886	410	1.5
지방은행 평 균	25,154	221	0.9	30,840	295	1.0
시중은행 평 균	13,057	1,088	1.0	140,658	1,333	0.9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7〉 총자산 당기순이익률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1.31	0.87	0.72	0.86	0.69	0.65
지방은행	1.11	0.89	0.68	0.67	0.53	0.56
평 균						
시중은행	0.55	0.54	0.54	0.41	0.40	0.28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8〉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8.69	6.83	6.25	8.22	6.53	5.54
지방은행	7.45	7.18	5.87	6.36	5.73	5.63
평 균						
시중은행	5.97	6.42	6.88	5.80	6.17	3.91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9〉 예대금리차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6.63	4.55	5.45	5.32	5.50	4.99
지방은행	5.79	3.79	3.99	3.90	4.20	4.21
평 균						
시중은행	4.25	1.78	1.79	1.42	1.83	2.77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은 <표 8>에 나타나 있다. 충청은행의 ROE는 1990년 8.69%로 지방은행 평균인 7.45%보다 높았으나 1995년에는 5.54%로 오히려 지방은행 평균인 5.63%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연도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충청은행 ROE의 감소 추세는 지방은행 평균보다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있는 은행의 경우 한정된 자산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는 향후 은행의 대출행태가 대기업에 대한 '박리다매' 식의 대출보다는 소매금융으로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분야는 기존 중소기업기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ROE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충청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995년 현재까지 지방은행 평균과 시중은행 평균수준을 월등히 초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만을 고려하면 그리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예대금리차를 유지하면서도 충청은행의 총수익은 1995년도 현재 3,119억원으로 지방은행 평균인 3,510억원의 88.9%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총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이로 인한 부실여신 비율이 높다는 것 등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때 예대금리차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수단일 수도 있을 것이다.

충청은행의 수익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1995년에 총수익은 3,119억원이고 이중에서 대출관련 수익이 58.1%, 유가증권관련 수익이 29.1%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은행 평균의 대출관련 수익 54.6%, 유가증권관련 수익 2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이자수입과 외환관련 수입은 각각 2.9%와 0.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은행 평균인 6.2%와 3.5%

<표 10> 부문별 수익상황(1995년도)

(단위 : 억원, %)

구 분	총수익	대출관련	수 익	기타수입	이 자	유가증권	관련수익	외환관련	수익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충청은행	3,119	1,812	58.1	92	2.9	907	29.1	29	0.9
지방은행 평 균	3,510	1,915	54.6	216	6.2	836	23.8	124	3.5
시중은행 평 균	13,070	6,889	52.7	846	6.5	2,070	15.8	1,080	8.3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보다 낮다. 한편 지방은행 평균의 외환관련 수익은 시중은행 평균의 외환관련 수익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8.3%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의 전통적인 예대업무와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수입원의 발굴과 외환관련 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11〉에서는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여 주고 있다.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이 개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은행산업의 경우 수수료의 중요성은 다시금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 일반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1990년 이후 1995년까지 1994년의 34%를 제외하고는 매년 15-25%의 증가를 보였다. 충청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입은 1990-1995년 사이에 1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 수입 수수료와 지급보증료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수입의 절대규모 면에서는 지방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금융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신용카드는 소비자 금융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며 소액 신용대출 또한 신용카드를 통하여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입 수수료가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금리자유화에 따라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수료 수입의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영업에 있어서 지역성과 함

께 지방은행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충청은행은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안정성 분석

자기자본비율과 예대율 및 부실여신 현황을 통하여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예대율이 낮고 부실여신 비율이 낮다면 은행의 경영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기자본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자. 은행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의 하나는 최저 자본금요건(minimum capital requirement)이다. 은행의 자본금은 한 은행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은행의 도산과 폐업을 야기할지 모르는 자산가치의 일시적 하락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보유된다. 그러나 은행은 지나치게 많은 자본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기에 자본금 완충장치가 작아지는 데에 따른 비용과 자본금이 적어질 경우에 생기는 높은 자기자본수익률을 서로 견주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모든 은행들은 BIS규제에 의하여 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외항목(이자율스왑, 선물 및 옵션에 대한 거래포지션 등)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위험조정자산을 산출하고, 총위험조정자산의 8%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말 BIS기준 충청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1.6%, 지방은행 평균은 11.4% 그리고 시중은행 평균은 9.0%로 BIS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8%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1992년 이래로 시중은행 평균과 지방은행 평균보다 높은

〈표 11〉 수수료 수입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지급보증료	신용카드 수입수수료	원 화 수입수수료	외 환 수입수수료	계	총수익대비율
1990	충청은행	5	22	23	3	53	4.4
	지은평균	9	26	30	7	72	5.1
	시은평균	70	194	147	163	574	8.5
1991	충청은행	8	28	29	4	69	4.5
	지은평균	12	30	41	9	92	4.8
	시은평균	75	1,912	179	166	611	8.7
1992	충청은행	19	30	36	6	91	4.9
	지은평균	18	29	48	9	104	4.8
	시은평균	100	184	199	169	652	8.5
1993	충청은행	28	34	58	6	126	6.7
	지은평균	25	40	60	11	136	6.0
	시은평균	120	257	228	189	794	10.1
1994	충청은행	36	47	57	7	148	6.3
	지은평균	32	67	76	16	191	6.9
	시은평균	130	429	274	228	1,061	10.1
1995	충청은행	40	72	41	10	163	5.2
	지은평균	36	99	54	18	207	5.9
	시은평균	130	594	173	260	1,157	8.9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실시와 은행제도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신뢰성 상실시 개별은행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는 이유로 인하여 자기자본을 작게 보유하려는 유인이 있지만 자기자본의 확대를 통해서 대출이나 기타 자산운용의 규모를 증

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는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대율이 낮으면 예수금보다 대출금이 작다는 것으로 대출의 부실화에 따르는 위험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13〉에서 볼 때 충청은행의 경우 예대율은 1995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

〈표 12〉 자기자본 비율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12.4	11.2	17.0	14.8	14.5	11.6
지방은행	13.0	11.6	16.3	14.9	13.1	11.4
평 균						
시중은행	8.5	8.2	10.4	10.4	10.2	9.0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표 13〉 예대율 추이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94	95
충청은행	79.4	80.5	71.9	65.6	68.2	71.6
지방은행	85.1	82.3	74.7	72.1	70.2	70.4
평 균						
시중은행	115.5	94.8	81.4	78.1	76.6	75.9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부터 1994년까지는 지방은행 평균보다 예대율이 낮다.

예대율만을 가지고 보면 충청은행은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부실여신비율이 여타 은행들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은행경영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충청은행의 신용대출/총대출 비율이 여타 지방은행의 동비율보다 높다는 사실로

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은행경영의 안정성 측면만을 고려하면 예대율이 낮아야만 하지만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현상의 심화와 관련지어 지역금융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한편 앞서 〈표 6〉의 부실여신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청은행의 총대출에서 부실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은행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

〈표 14〉 총자산 증가율

(단위 : %)

구 분	91	92	93	94	95
충청은행	17.9	12.6	5.6	24.6	20.1
지방은행	22.9	6.6	13.5	25.9	25.2
평 균					
시중은행	18.5	19.0	18.5	27.2	35.1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로 상당한 정도의 대출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만큼 은행경영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결국 충청은행은 자기자본은 BIS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대출에 따르는 사전적인 심사기능과 사후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의 부족으로 인하여 은행경영의 안정성이 저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성장성 분석

은행의 성장성은 총자산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표 14〉는 총자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은행의 경우에는 1992년을 제외하고 총자산 증가율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지방은행 평균보다 낮아 성장성 측면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과 비교하여도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다.

〈표 15〉 순이익 증가율

(단위 : %)

구 분	91	92	93	94	95
충청은행	-16.1	-5.3	33.6	0	-2.1
지방은행	2.5	-13.1	10.5	-0.8	9.4
평 균					
시중은행	21.8	20.3	-7.6	22.4	-22.5
평 균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순이익 증가율을 보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알 수 있다. <표 15>에 제시되어 있듯이 충청은행의 경우 1993년까지는 순이익 증가율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후부터 1995년까지는 다시 악화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은행 평균과 시중은행 평균의 경우에는 연도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충청은행과의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 지방은행 평균의 경우에는 등락폭이 충청은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순이익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 지방은행들과 충청은행간의 규모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 생산성 분석

생산성지표를 통해 충청은행과 지방은행 평균 및 시중은행 평균을 비교하기로 한다. 최근 3개년 동안의 생산성지표는 <표 16>과 같다. 1인당 여수신 실적에 있어서 충청은행은 지방은행 평균과 시중은행 평균보다 저조한 형편이다. 그러나 예수금 및 대출금의 증가율은 비교대상의 수치들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인당 순이익은 시중은행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방은행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

치를 나타내고 있다.²⁾ 1인당 부가가치는 절대액에서 비교대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1995년에는 지방은행 평균보다 530만원이 높은 7420만원을 기록하여 시중은행 평균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충청은행이 여수신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절감 노력이 타지방은행에 비해 두드러진 때문인 듯하다.

한편 점포당 순이익의 경우에도 1인당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방은행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러나 점포당 여수신 실적은 비교대상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은행의 점포당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지역별 시장전략을 재검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포를 점포지역의 주변여건과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수신실적, 계좌수,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여 필요시 점포와 인원을 재조정하는 전략의 수입이 요청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충청은행의 생산성은 지방은행 평균과 시중은행 평균에 비하여 열세에 놓여 있으나 점차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1995년 1인당 순이익의 시중은행 평균은 750만원으로 비교대상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화은행과 평화은행이 각각 -1,150만원, -1,280만원을 기록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998만원 수준이다.

3) 1995년 시중은행의 점포당 순이익도 1인당 순이익과 마찬가지로 동화은행과 평화은행이 각각 -270백만원, -316백만원을 기록한데 기인한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의 점포당 순이익은 276백만원이다.

〈표 16〉 생산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인당 총자산	1인당 예수금	1인당 대출금	1인당 순이익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총수익	1인당 총비용	점포당 순이익	점포당 예수금	점포당 대출금
1993	충청은행	883	923	491	10.0	46.0	98.8	88.8	289	26,694	14,196
	지은평균	1,062	1,009	683	8.9	53.1	116.0	107.1	245	27,831	18,849
	시은평균	1,525	1,610	1,163	11.0	59.6	148.6	137.6	386	56,561	40,841
1994	충청은행	1,097	1,120	631	10.1	53.1	123.2	113.1	266	29,386	16,564
	지은평균	1,259	1,269	823	8.8	59.8	140.4	131.6	221	31,866	20,678
	시은평균	1,808	2,169	1,376	12.7	78.6	201.9	189.2	406	69,207	43,905
1995	충청은행	1,473	1,400	877	10.1	74.2	169.1	159.0	246	33,979	21,271
	지은평균	1,571	1,571	1,010	9.6	68.9	177.5	168.0	222	36,465	23,439
	시은평균	2,016	2,500	1,512	7.5	76.7	218.5	211.0	225	75,143	45,430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III.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책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상호 보완적이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지방산업의 육성 또는 지방사회간접자본의 건설시 경제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이러한 기본원리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부분적이었고 임기응변적이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경제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에 적합한 금융지원을 수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금융을 확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은행, 지방투신사, 지방리스사, 지

방생보사 등이 설립되었지만 이도 역시 지방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취약성 등으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방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역금융은 제도상의 문제점, 금융기관 소유구조상의 문제점, 지역의 생산 및 유통체계의 문제점 등으로 많은 구조적 문제점과 취약성을 안고 있는 바 대전·충남 지역금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력의 취약

우리 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가 극심하다. 서울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총인구 4,551만 명의 23.7%, 지역총생산의 27.4%, 광공업 사업체 수의 22.7% 등을 점유하고 있어 대체로 실물경제

의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전·충남지역의 면적은 전국토의 8.9%, 인구는 6.8%를 점유하고 있으나 지역총생산 규모는 6.5% 수준에 불과하다.

〈표 17〉의 지역별 광공업 및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전·충남지역은 전국 대비로 광공업 생산액의 5.0%, 부가가치의 5.3%, 사업체수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충남지역은 지역내총생산 중에서 농림어업이 22.6%, 광공업이 23.6%, SOC 및 기타가 53.8%를 점유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1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의 재정자립도 역시 서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1994년 기준으로 서울이 86.3%인데 반해 대전이 62.6%, 충남이 30.7%이다. 충남

〈표 17〉 지역별 광공업 및 부가가치 생산액(1993)

지 역	사업체수(개)	생산액(10억원)	부가가치(10억원)	인구(천명)
전 국	90,506(100.0)	257,776(100.0)	109,715(100.0)	45,512(100.0)
서 울	20,532 (22.7)	24,737 (9.6)	1,195 (10.9)	10,799 (23.7)
부 산	9,262 (10.2)	14,456 (5.6)	6,332 (5.8)	3,847 (8.5)
대 구	6,089 (6.7)	8,200 (3.2)	3,792 (3.5)	2,347 (5.2)
인 천	6,403 (7.1)	20,796 (8.1)	8,124 (7.4)	2,208 (4.9)
광 주	1,103 (1.2)	4,571 (1.8)	2,037 (1.9)	1,274 (2.8)
대 전	1,342 (1.5)	3,787 (1.5)	1,976 (1.8)	1,235 (2.7)
경 기	22,914 (25.3)	63,758 (24.7)	2,915 (26.6)	7,438 (16.3)
강 원	1,476 (1.6)	3,871 (1.5)	2,069 (1.9)	1,531 (3.4)
충 북	1,827 (2.0)	9,802 (3.8)	4,747 (4.3)	1,427 (3.1)
충 남	2,601 (2.9)	9,084 (3.5)	3,704 (3.4)	1,845 (4.1)
전 북	2,252 (2.5)	5,843 (2.3)	2,663 (2.4)	2,005 (4.4)
전 남	3,113 (3.4)	12,915 (5.0)	4,909 (4.5)	2,198 (4.8)
경 북	4,965 (5.5)	23,401 (9.1)	9,429 (8.6)	2,876 (6.3)
경 남	6,334 (7.0)	52,260 (20.3)	18,682 (17.0)	3,968 (8.7)
제 주	293 (0.3)	296 (0.1)	151 (0.1)	,514 (1.1)

* 인구는 1994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5.

의 경우는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력의 취약은 지역산업의 부도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도 파악이 가능하다. 대전·충남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금액기준으로 1994년말 0.52에서 1995년말에는 0.85로 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동안에 전국평균이 0.19에서 0.18로 감소하고 지방평균이 0.61에서 0.68로 약간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대전·충남지역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지역 경제력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2. 금융기반의 취약

지방에서 조성되는 자금의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994년 기준으로 총점포의 70.6%인 1,894개가 수도권에 소재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방은행 평균과 점포당 예수금 실적

〈표 18〉 지역별 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10억원, %)

지 역	예 금		대 출 금		예 대 율	
	1993	1994	1993	1994	1993	1994
전 국	115,732	135,190	108,091	127,066	91.3	91.7
서 울	58,976	68,747	53,634	62,701	86.9	86.9
부 산	9,056	9,916	8,762	9,885	95.9	98.7
대 구	6,158	6,900	6,183	7,532	100.4	106.3
인 천	4,321	5,090	4,343	5,007	100.4	98.3
광 주	2,505	3,035	2,513	3,045	100.3	100.3
대 전	2,541	2,883	2,445	2,876	96.2	99.8
경 기	12,070	14,680	10,154	12,699	84.1	86.5
강 원	2,009	2,341	1,651	1,926	82.2	82.3
충 북	1,716	2,038	1,806	2,965	105.3	101.4
충 남	1,864	2,261	1,684	1,938	90.3	85.7
전 북	2,444	2,963	2,632	3,085	107.7	104.1
전 남	1,895	2,292	2,166	2,479	114.3	108.2
경 북	3,341	4,061	3,292	3,933	98.5	96.9
경 남	6,004	7,012	6,085	7,230	101.4	103.1
제 주	834	974	741	844	89.0	86.7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1995. 11.

을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표 16 참조). 또한 동년을 기준으로 전체 지방은행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금융기관의 총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하며, 지방총수신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금융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표 18>의 지역별 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 현황과 <표 19>의 지역별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수금 및 대출금 현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예금은행의 경우 예대금의 50% 내외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 부산, 대구, 경남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예대금의 규모는 아주 저조한 수준으로 전국대비로 예금과 대출금이 각각 3.8%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통화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전·충남지역이 예수금은 전체의 4.7%, 대출금은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금은행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지역의 금융저축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1인당 예금은행 예금액을 보면 1994년의 경우 대전은 서울의 36.7%, 충남은 19.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저축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아 저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기관의 보급정도를 나타내 주는 인구 10,000명당 평균 점포수는 1991년의 2.2개에서 1995년말 현재는 2.6개로 늘어나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11개로 전국 평균보다 0.3개 적은데 반해 비통화금융기관은 1.5개로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0.3개가 많은 실정이다(대전·충남 지역경제동향, 1995). 이는 다음에 논의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는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3. 자금의 역외유출

지금까지 대전·충남지역의 경제력이 취약하고 금융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의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말을 기준으로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하여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약 162조원인데 그 중에서 58.5%인 약 95조원만이 지방에서 대출되었다.

한편 동년말을 기준으로 대전·충남지역의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규모는 전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4.7%로 약 14조9천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대전·충남지역에 대출된 금액은 51.7%인 7조8천억원 수준이다.

대전·충남지역의 자금 유출입 상황은 <표 20>과 같다.

1994년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예금은행의 은행계정과 비통화금융기관의 개발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예수금보다 대출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전·충남지역의 자본시장이 미미한 상태인데다 여신기반

〈표 19〉 지역별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수금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10억원, %)

지 역	예 수 금		대 출 금		예 대 율	
	1993	1994	1993	1994	1993	1994
전 국	255,797	321,335	157,988	200,758	61.8	62.5
서 울	125,495	158,933	84,014	105,893	66.9	66.6
부 산	19,941	23,971	9,912	12,797	49.7	53.4
대 구	12,383	15,360	5,849	8,030	47.2	52.3
인 천	8,124	9,952	4,686	6,187	57.7	61.9
광 주	6,505	8,297	3,415	4,536	52.5	54.7
대 전	6,587	7,934	2,785	3,489	42.3	44.0
경 기	19,830	25,912	12,361	16,149	62.3	62.3
강 원	5,354	6,479	2,965	3,801	55.4	58.7
충 북	4,878	6,140	2,881	3,653	59.1	59.5
충 남	5,909	7,305	3,683	4,389	62.5	60.1
전 북	7,159	9,134	4,004	5,337	55.9	58.4
전 남	6,765	8,441	4,301	5,481	63.6	64.9
경 북	9,808	12,462	61,090	7,596	63.1	60.9
경 남	14,178	17,435	9,276	11,393	65.4	65.3
제 주	2,881	3,581	1,657	2,058	57.5	57.5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1995. 11.

〈표 20〉 대전·충남지역의 자금 유출입 상황(1994년말 기준)

(단위 : 10억원)

구 분	은 행 합 계	개 발 기 관	종 합 금 용	투 자 신 탁	은 행 신탁	상 호 금 용	상 호 신 용	새마을 금 고	신 용 협 동	생 명 보 험	재2금융 합 계
예금a	5,145	66	117	2,450	2,798	3,611	1,647	880	1,004	2,248	14,870
대출b	5,783	661	84	26	687	2,572	1,283	604	805	1,060	7,781
b-a	638	595	-33	-2,424	-2,111	-1,039	-364	-276	-199	-1,188	-7,089

자료 : 한국은행대전지점, 「대전·충남 지역경제연보」, 1995. 9.

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호금융,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외, 신용카드업무 등 여수산업무 이외의 수익성 부문을 가진 은행과는 달리 여수산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높은 수신금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높은 여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영세한 지역고객들의 대출수요는 계속 미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로 금융기관의 예대율을 살펴보면 1995년말 현재 예금은행의 경우 전국평균은 89.6%인데 대전은 95.9%로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충남은 87.6%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 볼 때 대전지역의 예금은행들은 대출에 적극성을 띠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충남지역은 산업구조가 농업·농림업 비중이 높고 광공업 비중이 낮아 예금은행을 통한 자금대출의 수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비통화금융기관의 예대율을 살펴보면 대전은 40.8%, 충남은 58.8%로 전국평균인 62.3%보다 낮게 나타나 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대전·충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금융저축도 낮고 금융기관도 매우 취약하다. 이처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취약한 이 지역에서 지방은행으로서 충청은행의 역할제고와 이에

따른 지역금융의 확충에 대한 기대는 여타 지방은행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전·충남지역은 다가올 서해안시대의 중추역할을 할 전진기지로서 향후 상당기간동안 산업시설의 확충,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주민생활 편의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이 지역금융의 중추역할을 할 충청은행의 역할제고와 위상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금융 확충에 대해 충청은행에 거는 기대는 큰 형편이나 지방은행으로서의 여러 가지 한계점과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충청은행은 아직도 지역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실적은 지방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후발 전국형은행의 수준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한 이 지역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성자금의 유치수준 역시 미미한 형편이다. 게다가 충청은행은 이 지역의 타 금융기관들과 치열한 수신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밀착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정부도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선별적인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은행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측면에서의 지원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별화 하여야 할 것이다(장충식 외, 1993).

Ⅳ.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발전방향

1. 충청은행의 장기계획

충청은행의 장기계획(1995-1999년)에 따르면 경영목표를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은행으로 도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객감동, 둘째 지역경제 선도, 셋째 인재양성, 넷째 경영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는 첫째 경영체질의 강화, 둘째 경영 효율성의 강화, 셋째 지역밀착화 전략의 확산, 넷째 종합 정보전산시스템체제 구축, 다섯째 종합금융서비스체제 확립, 여섯째 국제화 기반조성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경영전략의 확실한 수행을 위하여 부문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경영관리 부문

- ① 조직의 효율성 제고
- ②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인재 양성
- ③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 ④ 고객중심의 영업체제 구축
- ⑤ 경영합리화의 지속적 추진
- ⑥ 자기자본의 충실
- ⑦ 영업기반의 확대
- ⑧ 수익기반의 확충
- ⑨ 자산 재구축

나. 수신 부문

- ① 수신기반의 확충
- ② 예수금의 지속적 증대

- ③ 유동자금의 유치 강화
- ④ 상품의 개발능력 강화
- ⑤ 신탁부문 확대
- ⑥ 고객중심의 영업체제 구축

다. 여신 부문

- ① 여신의 수익성 제고
- ② 대출심사 업무의 효율화 추진
- ③ 여신의 안정성 제고

라. 외국환 부문

- ① 외환부문 하부구조 구축
- ② 외환 실적 및 손익 증대
- ③ 외환업무 관리강화
- ④ 외환 취급점포의 저변화
- ⑤ 금융국제화 기반구축

마. 정보 및 전산 부문

- ① 사무자동화 및 합리화 추진
- ②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③ 자동화코너 확대
- ④ 전산시스템 기능강화
- ⑤ 전산자원의 생산성 향상

바. 조직 부문

- ① 조직의 고객 지향적 개편
- ② 조직운영의 효율화

사. 인사 부문

- ① 효율적 인사관리
- ② 인재양성
- ③ 복지후생제도의 확대로 인간존중 실현

2. 충청은행의 발전방향

충청은행의 장기계획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금융자유화, 국제화 및 개방화가 1990년대 초부터 급속히 추진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등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3단계 금리자유화의 실시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상품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금리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금리구조가 합리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자금조달시 은행보다는 조달 비용이 적게드는 자본시장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은행들은 불가피하게 대기업에 비하여 도산 위험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가 및 환율의 일중 변동 허용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밖에 장기적으로 금리옵션, 금리선물, 금리스왑 등을 취급하는 원화과생금융시장이 설립되면 외화부문 뿐만 아니라 원화부문에서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각종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은행의 신용위험, 금리위험, 가격·환율변동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경영위험의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은행의 위험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경영위험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도산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수익극대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금리 및 유동성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고 능동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구성 및 만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거나 통제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 ALM)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위험중심의 위험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합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정익준, 1996).

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들은 가격경쟁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위주로營業을 하여야 한다. 은행대출업무의 예를 들면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대출심사와 관련한 정보의 생산, 부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으로부터 창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러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보다 많은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업의 핵심은 고객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은행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충청은행으로서 고객감동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전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네트워크의 형성자로서 잠재력을 발휘하여 정보제공, 컨설팅업무 등을 통하여 자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대서비스의 충실화를 기함으로써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주민의 기대감 충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표 21〉 위험요소들의 변동 허용폭 추이

위험요소	변 동 내 용
금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11월 : 제1단계 자유화 시행 (CD, 거액RP,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재할인대상 제외) 및 2년 이상 회사채 등에 대한 금리) - 93년 11월 : 제2단계 자유화 시행 (2년 이상 정기예금, 재정·한은지원외의 모든 대출 및 2년 미만 회사채 등에 대한 금리) - 94년 7월, 12월 및 95년 7월, 11월 : 제3단계 자유화 시행 (요구불예금 및 일부 단기 시장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 금리) - 96년 1월 : 은행대출 가산금리 자유화 - 97년 이후 : 모든 여수신금리 자유화
주 가	- 95년 4월 : 일일 주가변동제한폭이 가격대별 제한에서 전일 증가대비 $\pm 6\%$ 로 확대
환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94년 10월 : 일중변동허용폭 $\pm 1\%$ - 94년 11월 : 일중변동허용폭 $\pm 1.5\%$ - 95년 12월 : 일중변동허용폭 $\pm 2.25\%$

자료 : 정익준, 「금융환경변화와 은행의 위험관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6. 5.

금융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표 16〉에서 본 바와 같이 충청은행의 1인당 부가가치는 1994년까지는 지방은행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지방은행 평균을 상회하여 시중은행 평균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지역밀착화와 전문화의 강화

충청은행 자체가 갖는 특색이 없이 시중은행과의 경쟁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할 것이기에 충청

은행의 발전방향은 전국형 은행화하는 것보다는 지역금융에의 토착화 및 전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밀착화가 가장 바람직한 전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이 진전될수록 정책당국은 대외경쟁력을 염두에 두게 되고 이에 따라 대형 시중은행을 활용한 규모확대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충청은행이 대형화 경쟁대열에 참여하기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는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전문은행으로의 성장이 시급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개발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금융 및 금융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금융의 선도적 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떤 고객층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별, 고객별, 상품별 시장전략 등의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예금섭외력을 융자섭외력으로 전환하며 심사기능의 신속화 및 고도화에 의한 융자섭외 기능에 대한 지원태세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충청은행 스스로도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함은 물론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및 금융상품의 개발추진 등 제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라. 타 지방은행과의 제휴 강화

주요국의 은행들은 대형은행과 소규모 전문은행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생산에 요구되는 방대한 투자비용의 부담으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은행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또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일부 대형은행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따라서 경쟁력을

상실한 은행들을 매수, 합병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제한된 영업구역을 갖고 있는 지방은행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전략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합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이것이 바로 대형은행, 외국은행 지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은행의 발전방향으로 타 지방은행과의 제휴 강화가 요청되는 바 대표은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은행제도는 일본의 지방은행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에 지점이 있는 한 지방은행의 지점을 전 지방은행의 대표은행으로 지정하여 중앙 각 단체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전국 지방은행으로의 송금 및 예금업무의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중앙의 관공서와 거래하고자 할 경우 1회만의 교섭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단결하여 거래처를 획득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은행이 대표은행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지방은행의 최대 취약점인 중앙단체의 각종 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만일 서울지역의 점포수 제한이 완화된다면(10개까지 설치 등) 지방은행은 가장 편리한 전국은행의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단체와의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중앙단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보다 깊게할 수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지정금융기관으로 지정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최근에 합의된 지방은행간 공동전산망의 구축은 10개 지방은행이 국내 최대의 점포망을 갖춘 은행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효율적 비용 구조의 구축

충청은행의 금융서비스 생산은 물론 점포망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점포망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은행의 1인당 순이익은 지방은행 평균을 상회하여 시중은행 평균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1인당 부가가치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청은행의 비용절감 노력이 두드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충청은행의 점포당 순이익은 지방은행 평균보다는 높으나 시중은행 평균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고, 최근에는 이 수치가 뚜렷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총 점포의 70.6%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수신 규모가 작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점포망이 비용의 효율적인 구조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충청은행은 점포를 점포지역의 주변여건 및 특성에 따라 office지역, 준office지역, 상가 및 공장지역, 주택지역, 준주택지역, 지방지역 등으

로 구분하여 이 지역들을 수신실적, 계좌수, 당기 순이익 등의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여 점포와 인원을 재조정하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바. 은행의 하부구조 개선

충청은행의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 기능의 강화, 상품개발 능력의 강화, 전산시스템 기능의 강화, 금융국제화 기반구축 등을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인재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즉 이러한 부문별 계획은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은행의 하부구조를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기술상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은행산업에 있어서 은행원의 자질, 중간관리자와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기술 등을 향상시키는 것은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행되고, 직원들은 고객의 상담에 응하거나 신상품의 개발과 신규 고객수요를 파악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모하게 될 것이다. 자금딜링과 포트폴리오 운용, 기업과 소비자들의 고객정보 관리, 국내외 경제동향에 관한 정보처리와 예측, 대출심사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문요원의 확충이 시급한 형편이다.

경영관리, 상품개발, 전산, 국제금융 등에 관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충청은행의 장기계획은 그 수행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V.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지역간, 부문간,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의 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지방산업의 육성, 지방주민의 편익시설 및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지역은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기에 더욱더 막대한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핵심인 충청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앞장에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의 강화방안과 은행 내부적 강화방안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의 강화방안

충청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며 정책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대전·충남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 충청은행의 수신기반 취약 문제, 중앙자금의 지역유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는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이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지역자금은 주로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하여 역외로 유

출되고 있는 형편인데 대전·충남지역은 앞의 <표 20>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신탁과 생명보험회사 등을 통한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조성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투자신탁회사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펀드의 지방채 편입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대출시 일정비율을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채신예금 등은 상환준비금의 일부를 지역의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자금의 지역순환시스템을 강화하여 영세한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지역자금은 그 지역을 위해 투용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충청은행의 수신기반이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지역의 경제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로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충청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에 있어서 종합전산망의 구축, 경영정보시스템의 개발, 사무자동화 등의 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생산성과 수익성 하에서는 투자비용의 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업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최소한 수도권 및 인접 경제권역에의 추가적인 점포의 신설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중앙자금의 지역유치 문제이다. 영업구

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충청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은 중앙자금을 지방에 유치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즉 전국적인 거래가 수반되는 대부분의 기금은 점포망이 없는 지방은행과의 거래에 큰 불편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각종 기금의 지역자금화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에 의해 대표은행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은행 내부적 강화방안

충청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 내부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ALM시스템의 도입이다. 은행금융기관은 자금잉여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자금부족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기능과 고객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은 불가피하게 신용위험, 금리위험, 가격·환율변동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들은 1980년 중반이후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 등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21 참조).

또한 자금 조달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와 경영자율폭 확대에 따른 투자재량권 확대로 주식 등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리의 구조가 합리화되고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 만성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지금까지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대기업들이 자금조달시 자본시장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은행들은 대기업에 비하여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확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은행들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로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ALM시스템의 도입이 요청된다.

둘째는 중소기업 신용평가 모델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향후 은행의 대출이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ALM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강조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 신용평가 모델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지금까지의 금융기관들은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 과거에는 한국은행이 재할인 적격업체 선정기준으로 정했던 '기업체 종합평가표'를 이용하였으나 이 평가표는 재무항목 위주로 되어 있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경영능력 등의 반영비중이 낮아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이 올바른 신용평가기법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기초자료 및 신용평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신용평가모델의 개발이 부진하였다. 이에 한국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비재무항목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한 중소기업 신용평가표를 신규 개발하여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지역적인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경영주의 능력이나 경영성실성, 경영진의 구성, 노사관계, 환경변화에의 대응력, 자금관리 능력 등에서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이 타은행보다 정보의 우위 확보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최고 수준의 부실여신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신용대출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충청은행으로서는 대출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기존의 신규 개발된 중소기업 신용평가표를 보완하고 이를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업무영역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은행의 수익원은 전통적인 예대업무에서 발생하는 예대금리차에서 고객대상의 금융부대서비스의 개발에 따른 수수료사업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충청은행도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어 가는 지역고객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단순한 자금매개의 기능을 넘어선 경영정보, 기술정보, 재테크정보를 부가시킨 컨설팅 등 부대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청은행 경제연구소를 통한 지역사회의 동정, 경제, 산업 및 금융동향에 대한 풍부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외환부문의 확대 및 강화이다. 충청은행의 부문별 수익상황을 살펴보면 외환관련 수입은 지방은행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0 참조). 이는 현재까지 금융국제화에 대한 충청은행의 대비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충청은행이 담당할 역할을 고려한다면 외환부문의 확대 및 강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충청은행은 국제화의 추진과 함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외환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선물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의 새로운 시장성 업무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외환부문의 확대 및 강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수료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는 지역밀착 경영의 전개이다. 충청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개발금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금융 및 금융외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금융 선도적 기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각종 상공단체와의 제휴에 의한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비전을 구축함과 동시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이들이 은행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금융지원 방법은 기업육성형 대출 실시, 지역기업 육성기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금융외적 지원방법으로는 기업종간의 교류회 개최, 경영자 세미나 및 중간관리자 지도, 유망중소기업가나 근로자의 해외시찰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향우회와 같은 지역출신 인사 모임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역외자금의 유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교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know-how의 상호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개발에의 투자는 지역권에서 사회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망한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정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전·충남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충청은행에 저축하면 그것이 다시 자신의 소득원으로 환원되고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저축향상을 제고시킬 것이다.

여섯째는 대전·충남지역소재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이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갖고 있는 지방은행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씨티뱅크와 같은 외국은행들이 지방에 점포를 늘려 가는 현재 지역의 금융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방은행은 지역의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한계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충청은행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경제권의 지방은행과의 합병 및 재편, 지역의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판매계약, 시설의 공동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야 할 것

이다.

일곱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화 추진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일부은행에서 운영해 온 지자체금고 및 법원공탁금에 대한 각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의 유치경쟁은 수성과 탈환을 둘러싸고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도금고는 시중은행이 독점하고 교육금고는 농협이 거의 전담하고 있다. 광역시금고는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는 해당지역의 지방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시금고의 경우는 전체금고를 지방은행과 농협이 거의 취급하고 있고 군금고는 농협이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은행이 전적으로 지자체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내의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지방금융과 지방재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경제를 포함하는 모든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하여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충청은행이 지자체금고업무를 유치하면 충청은행은 영업기반을 확충하게 되고 대전·충남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는 상호 보완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VI. 맺는말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추구는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

방은행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들의 경쟁력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년이 막 지난 지금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대전·충남지역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규모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지역주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에의 투자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금융환경의 변화 및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대전·충남지역의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에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호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쟁력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은행의 현황 및 대전·충남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분석함으로써 충청은행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세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은행의 장기계획을 토대로한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둘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창출, 셋째 지역밀착화와 전문화의 강화, 넷째 타지방은행과의 제휴 강화, 다섯째 효율적인 비용구조의 구축, 여섯째 은행의 하부구조 개선 등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장기 발전방향으로 충청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충청은행 내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은행산업은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중개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정책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아 왔고 그만큼 자율화의 진행정도도 완만하였다. 따라서 충청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 및 시장환경 측면에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지방은행의 수신기반 취약에 따른 영업구역 규제의 완화, 중앙자금의 지역유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표은행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정책당국의 지원이 선결 과제이다.

이와 같은 정책당국의 지원 하에 충청은행 내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첫째 ALM시스템의 도입, 둘째 중소기업 신용평가표의 적극적 활용, 셋째 업무영역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넷째 외환부문의 확대 및 강화, 다섯째 지역밀착경영의 전개, 여섯째 지역소재 타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화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모색은 충청은행으로 하여금 자행의 발전과 더불어 대전·충남 지역의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전개될 21세기에는 금융거래에서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는 금융의 범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수지개선과 비용통제에 힘쓰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금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은행도 이러한 금융

환경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세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자행의 경영규모, 업무특성에 적합한 국제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을 신속히 체득하여 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적자생존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경쟁력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 구재운, “지역성장과 금융”, 전남지역경제조사, 1995. 4.
- 김시담, “21세기의 금융산업”, 한일금융, 1994. 9.
- 김재필, “지방은행의 과제와 선택”,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제2권1호, 1996.
- 김태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자금흐름성 비교분석, 한국금융연구원, 1994.
- 류덕위, “금융환경변화와 지역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은행대전지점 심포지움, 1996. 6.
- 엄봉성, “21세기 지역금융산업의 발전방향”, 부은경제, 1995. 11-12.
- 오성동,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의 방향”, 전남지역경제조사, 1994. 10.
- 유승종, “시중은행의 지방경쟁력”, 조흥경제, 1995. 9.
- 이수호,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실태와 효율화 방안”, 부은경제, 1996. 5-6.
- 이영수, “은행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과 효율성 추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6.
- 장충식 외 2,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광주은행의 경영전략, 미래경제연구원, 1993. 9.
- 정구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은행의 지역밀착 영업전략”, 국민경제리뷰, 1992. 4.
- 정익준, “금융환경변화와 은행의 위험관리”, 한국은행 경제분석, 1996. 5.
-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5.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5.
- _____, 지역금융통계, 1995. 11.
- _____, 한은정보, 1996. 2.
- 한국은행대전지점,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체 경쟁력 강화방안, 1994. 12.
- _____, 대전·충남 지역경제연보, 1995. 9.
- _____, 대전·충남 지역경제동향, 1995. 12.
- _____, 최근의 대전·충남 지역경제동향, 1996. 2.
- _____, 충남지역의 경제분석, 1996. 3.
- 한국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5.
- Mishkin F.S.,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Harper Collins, 1995
- Patrick H.T.,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 1966
- Stiglitz J. E. and A. Weiss,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981.